

ATS 인조 판막의 조기 임상성적 및 도플러 심에코 검사 소견

삼성의료원 흉부외과

박계현·유정우·윤양구·김관민·전태국·김진국·심영목·박표원·채현

ATS 인조판막은 최근에 임상에 이용되기 시작한 쌍엽구조의 pyrolytic carbon 판막으로 본 연구는 이 판막을 사용한 판막 치환수술 후의 조기 성적에 대한 연구이다.

ATS 인조판막을 이용하여 심장판막 치환수술만을 시행받은 100명의 연속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 성과 외래 추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술 후 시행한 도플러 심에코 검사 결과를 통하여 이 판막의 혈액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48.6세였으며 총 124개의 판막이 치환되었다(승모판막 71, 대동맥판막 46, 삼첨판막 7). 가장 많이 사용된 크기는 승모판막에서는 27mm(40.8%), 29mm(35.2%)였고 대동맥판막에서는 23mm(30.4%), 21mm(28.3%)였다.

수술후 조기 사망은 1례도 없었고 총 950 patient-months의 외래추적이 이루어졌다(추적률 = 99%). 만기 사망도 없었으며 혈전 및 색전 등이나 항응고제 치료에 기인한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았다. 2명의 환자가 각각 Valsalva동의 파열과 심내막염에 의한 대동맥 인조판막 dehiscence로 재수술을 받았다. 승모판막 재치환수술을 받은 1명의 환자에서 경도의 판막주위 누출이 발견되었다.

도플러 에코 검사 결과 판막 전후의 최대 및 평균 압력차는 승모판막의 경우 각각 평균 6.9mmHg, 2.6mmHg였고 대동맥판막의 경우 26.4mmHg, 14.2mmHg였으며 승모판막의 평균 개구부 면적은 2.7cm²였다. 27-mm 이상 크기의 승모판막에서는 판막의 크기에 따른 압력차나 개구부 면적의 차이가 없었으나 대동맥판막에서는 판막 크기의 감소와 압력차의 증가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19-mm와 21-mm 대동맥판막의 경우는 최대 및 평균 압력차가 각각 52.2mmHg, 26.9mmHg 및 27.1mmHg, 13.3mmHg였다.

상기 연구결과로써 ATS 인조판막의 조기 임상 성적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으며 혈액학적 특성은 기존의 동일 유형 판막들과 비교하여 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